

신이식 환자에게서 발생한 근육 농양 2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최현숙 · 장형진 · 남해성 · 이상주 · 장윤경 · 이연수* · 김석영 · 장윤식 · 방병기

서론 : 근육 내 농양은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된 임상 양상은 농양이 발생한 부위의 열감, 통증, 압통 및 부종이며, 이학적 검사상 압통을 동반한 종괴와 피하의 홍반, 농양이 발생한 부위의 움직임 이상이 대표적이다. 원인균은 *Staphylococcus aureus*가 가장 흔하며, 이외에 *Streptococcus pyogenes*, *Enterococcus faecalis* 등이 있다. 저자들은 신장이식 환자에게 있어서 발병한 근육농양 2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 51세 여자 환자는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1년 6개월 전 신이식 수술을 받고, 평소 혈청 creatinine 1.5-2.5 mg/dL 을 유지하며 지내던 자로, 내원 2주 전부터 발생한 하지의 근육통과 내원 2일 전부터 발생한 꺾음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우하복부의 압통, 양측 하지의 부종과 발열감, 압통이 있었다. 검사실 소견상 WBC 52,000/mm³ (seg. Neutrophil 98.8%), Hb 11.3 g/dL, Hct 33.2%, BUN 153.4 mg/dL, creatinine 10.1 mg/dL, LDH 1,821 IU/L, CPK 50 IU/L, Hb A1C는 9.3%이었다. 혈액과 소변 배양 검사에서 *E. coli*가 배양되었고, 혈액투석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양측 하지의 압통이 지속되어 하지의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 양하지의 soleus muscle과 gastrocnemius muscle 사이에 12×6×2 cm 크기의 농양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다. 현재 하지증상과 신기능은 회복 추세이며, 현재 항생제로 치료 중이다.

증례 2 : 36세 남자 환자는 8년 전 신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식 후 당뇨로 진료 중인 자로 내원 3일 전부터 발생한 고열과 우측 허벅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하지의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관찰되었으며, 검사실 소견상 WBC 24,000/mm³, Hb 14.3 g/dL, Hct 42.6%, Platelet 1,170,000/mm³, BUN 24.7 mg/dL, creatinine 1.21 mg/dL, LDH 336 U/L, CPK 295 IU/L, Hb A1C는 8.0%이었다. 항생제 치료 후 발열은 호전되었으나 허벅지의 통증이 지속되어 둔부 MRI를 시행하였고, Obturator internus muscle의 부종과 농양이 관찰되었다. 농양에 대해 절개와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항생제를 병행하여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었고 현재 경구적 항생제를 유지하며,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결론 : 저자들은 신장이식 환자이면서 균혈증이 동반된 근육 내 농양 1예와 선행 요인 없이 발생한 근육농양 1예를 경험하였다. 두 환자 모두 면역억제제를 복용한다는 점과 당뇨병으로 치료 중인 점이 공통점이 있었고, 근육 내 농양의 진단에 MRI가 사용되어 정확한 진단을 내렸으며, 절개와 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향후 신이식 환자에서 원인불명의 고열과 특정부위의 근육통증이 동반되고, 특히 당뇨병이 합병된 경우는 근육 내 농양을 의심하여 MRI를 통한 신속한 진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